

부처님 공경하듯 정성껏 비누칠

신행현장

노인 목욕 돕는 보살들

"더럽다 깨끗하다는 생각조차 없어요. 목욕이 끝나면 오히려 내가 더 깨끗해집니다."

새해가 시작되는 2일, 부산 불교복지보건의료재단(회장) 5기 졸업생들의 두 번째 목욕봉사가 있던 날. 한 할머니의 몸을 정성껏 씻어주며 유애목 보살(43)이 하는 말이다. 이날 10명의 보살들은 부산 동인병원에서 거동이 불편한 중풍이나 치매 노인들을 목욕시키며, (신아침)에 나오는 '불구 부정(不垢不淨) 더러움도 깨끗함도 없다'의 깊은 뜻을 체득하고 있다.

몸 구석구석의 때를 씻어내는 봉사자들의 손길은 한평생 맺히고 쌓인 할머니들의 마음 깊은 곳 응어리까지 말끔히 씻어낸다. 물소리에 어울려 '좋다! 좋아!' 하는 할머니들의 칭찬이 터져 나오고 봉사자들도 덩달아 신이 난다. 제대로 가누지 못하는 몸을 받쳐주는 힘이 들텐데도 지친 기색 없는 이들은 몸을 맡기고 속스러워 할 노인들을 위해 '할머니, 예쁘게 씻어드릴게요' 하는 말도 해가며 열심히 몸을 문지른다.

자신의 몸을 가누기조차 어려운 중풍 노인, 힘들게 겨우 몸을 움직이는 노인들이 대부분이다 보니 혼자서 하는 목욕은 엄두도 못내는 현령. 늘 병상에 누워 대소변을 받아 내거나 기저귀에 의존하고 있는 노인들에게 불

교복지보건대학 목욕봉사자들의 손길은 그야말로 '효자손'이다. 운동이 부족한 노인들에게 흔히 보이는 배변장애가 많아 목욕을 시키다 보면 대변을 손으로 씻어내야 하는 경우도 있다. 냄새나고 더럽다고 얼골을 찡그릴만도 한데 이들 보살들의 자비손길과 빛 바가지의 맑은 물

부산 불교복지대 졸업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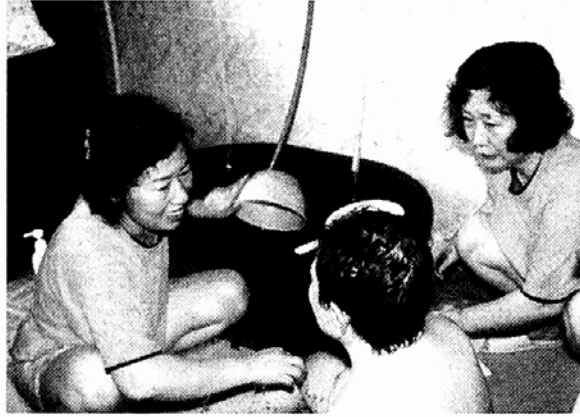
5기까지 릴레이 봉사

땀방울 맺힌 얼굴

어느새 약사보살 미소

에 의해 깨끗한 것도 없고 더러운 것도 없어진다.

처음 목욕봉사를 하고 사흘 간 몸져누워 있던 봉사자들은 두 번째 봉사를 하며 제법 익숙해졌다. 5기가 들어오면서 2, 3, 4기 선배들은 부산 지역 동인병원, 호도병원, 보현병원 등 병고로 고통받는 이들이 있는 새로운 병원에서 간병 호스피스 봉사자로 활동하며 불교계 자원봉사의 새 흐름을 만들어 가고 있다. 이미 지난해, 선배들의 목욕봉사는



◇부산 불교복지보건대학 5기 졸업생 목욕봉사팀이 2일 동인병원에서 거동이 불편한 노인을 목욕시켜주는 자비행을 실천하고 있다.

병원에서 주는 자원봉사자 상을 받을 정도로 불교복지보건대학의 봉사 활동은 늘 깊고 정성스럽게 소문나 있다.

선배의 뒤를 이어 봉사활동에 나선 10명의 졸업생들은 최고령 강선자(57세)보살을 비롯 대부분 50세를 바라보는 나이. 집에서 편히 쉬만도 한데 봉사현장으로 나올 수 밖에 없었던 데는 이유가 있다. 부처님 법대로 사는 길을 찾던 이들에게 봉사는 이름이 다른 수행방편이었고 실천의 바른 길이었다. 제대로 배워 알고 실천하겠다는 발심으로 내친 걸음에 불교복지보건대학 간병호스피스 3개월 과정까지 마쳤다.

"선배들이 워낙 잘해서 더욱 분발하게 된다"는 이두숙(48세) 봉사팀 조장은 "몸을 맡겨 온 한 분 한 분을 부처님 공양하는 지극한 정성으로 씻겨

드리고 보살피 드리려 노력하고 있다'고 봉사의 마음가짐을 전했으며 유애목 보살은 '너와 내가 돌아다니는 불이법(不二法)을 비누칠 하고 머리를 감겨 드리는 김 서린 목욕탕에서 더욱 절실히 느낀다'고 덧붙인다.

"잘해서 하는 봉사는 아닙니다. 그저 내가 할 수 있는 일을 마음 다해 할 뿐이죠. 일주일 동안 목욕하는 날만을 기다리고 있는 할머니, 할아버지들을 생각하면 빠질 수가 없어요" 땀방울이 맺힌 얼굴로 목욕시키기에 여념이 없는 이영숙(51) 회장의 말이다.

도움의 손길을 기다리는 수많은 세상 속 부처님들 곁으로 보다 가까이 다가가고자 하는 10명의 도반들. 어느새 약사보살의 미소와 원력을 담아 있다. 천미희 기자 (mhcheon@buddhapia.com)

주제가 있는 법문

반성하는 삶의 태도로 알찬 새해 설계하세요

또 한해가 시작되었습니다. 우리는 새로운 마음으로 새로운 역사의 한 점에 있습니다. 새로운 희망과 새로운 열매, 새로운 각오와 새로운 목표를 가슴마다 한 아름씩 안고 있기에 요즘 만나는 사람들은 모두가 싱싱합니다.

나는 사람들이 풍겨주는 그 싱싱한 기운이 오래도록 유지되길 바랍니다. 그러나 지난 시절들을 되돌아 보면, 그 싱싱함은 그리 오래 가지 못했습니다. 신년벽두의 가슴 설렘은 어느새 일장춘몽으로 잊혀져 버리고 쉽게 일상에 지쳐 버립니다. 스스로 쉽게 목표를 포기해 버리고 회의를 절망으로 돌려버립니다. 또 세월을 탓하고 정치인을 욕하고 경제를 한탄하고 세상 인심을 원망하는 일로 한해를 채워 나가기 바쁩니다.

우리는 그렇게 한해를 보내고 또 한해를 설렘으로 맞기를 되풀



삼공스님

서울 능어선원주지

두 번째로 인과를 믿지 않거나 인과법을 가벼이 여기는 버릇이 자신의 삶을 망치고 있음을 알아야 합니다. 흔히들 인과법이 대단히 어렵고 것이라고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콩 심은 데 콩 나고 팥 심은 데 팥 난다는 속담을 잘 아실 겁니다. 바로 그게 인과법입니다. 콩을 심은 자리에 팥이 나가거나 팥을 심은 자리에 콩이 날 수 없는 이치가 바로 인과법입니다. 그리고 인과법은 어김이 없습니다. 오늘 한마디의 거짓말로 남을 속였으면 그 과보는 반드시 자신이 받게 됩니다. 이승에서 받지 않았다고 사리지 않는 것이 아니라 다음의 어느 생애에서든 반드시 받게 됩니다.

새해를 시작하며 자신의 마음 속에 '인과법을 믿자'는 이정표를 달아 두시기 바랍니다. 어느 순간에도 양심을 버리고 남을 해치고 스스로를 속일 수 없을 것입니다. 그렇게 한 해를 살고 나면 새해가 얼마나 반갑겠습니까.

세 번째로 죽음을 생각하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죽음을 향해 두박두박 걸어가 있습니다. 태어나는 순간이 그 걸음의 시작인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영원히 죽지 않을 것처럼 착각을 합니다. 바로 그 착각이 인간을 오만하게 만듭니다. 오만의 종자를 마음으로부터 잘라 내야 합니다. 불교에서는 죽음이 끝이 아니라 새로운 시작으로 봅니다. 우리의 이 몸은 인과에 따라 참된 자기의 자리를 찾아 윤회하는 한 과정에서 만난 하나의 집입니다. 그러나 함부로 다루어서는 안될 중요한 집입니다. 이 몸으로 살아 나가는 한 생을 바탕으로 다음 몸과 생이 결정지어진다고 생각할 때 우리는 죽음을 보다 의미 있게 생각해야 합니다. 죽음을 준비하는 마음은 바로 교만하지 않고 겸허하고 순일한 마음으로 살아가는 뜻입니다.

인과법 가벼이 말고

스스로 속이지 말자

이하고 있는 것입니다. 새 아침부터 어찌서 이렇게 비관적인 소리를 하느냐고 따지고 싶은 사람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살아온 날들을 되돌아보면 이 말이 결코 틀리지 않을 것입니다. 나는 세 가지로 그 원인을 분석하여, 새해를 보다 알차게 시작하는 비법으로 처방해 드릴까 합니다.

첫째는 반성 할 줄 모르는 삶의 태도입니다. 살아 온 날들에 대한 반성은 하지 않고 미래를 향한 꿈과 희망만을 분주히 행기는 사람은 곧 좌절하고 절망하게 됩니다. 든든한 반석 위에 기둥을 세우고 집을 지어야 하듯이 자신이 살아 온 날들을 돌이켜 반성하고 그 반성으로부터 다져지는 깨달음을 바탕으로 새로운 계획을 세워야 합니다. 그런 계획은 순조롭게 조금씩 실천이 될 것이고 반드시 보람으로 자신을 도울 것입니다. 미래를 써서 밥을 하겠다고 덤벼드는 어리석음으로 새해를 설계 하셨다면 지금이라도 마음을 고쳐 먹고 지난 날들을 찬찬히 되돌아보는 지혜를 가지시기 바랍니다.

생활속의 불교

피안에 이르는 길

불법의 생활화를 논할 때 가장 경계해야 할 것이 불법의 세속화다. 불법을 자신의 살림 수준으로 끌어내려 해서는 안 된다는 말이다. 부처님의 가르침을 자의적으로 해석하거나 제 관한 대로 단정지어서도 안 된다. 만약 그런 사람이 있다면 그는 불자가 아니라 외도다. 그런데 스스로 부처님의 제자가 되기로 발원한 사람 중에도 더러 그런 사람이 있다. 끊임없는 정진으로 피안의 저 언덕에 이르러 하지 않고, 언덕을 제 쪽으로 끌어 당기고자 억지를 부리는 경우가 적지 않은 것이다. 정진을 포기하고 마치 피안에 도달한 양 자신을 속이고 타인을 기만하기도 한다. 하지만 피안은 항상 거기에 그렇게 있을 뿐이다. 스스로 불자라면서 믿음의 대가를 바라는 경

우도 많다. 일이 잘 되게 해 달라. 돈을 많이 벌게 해 달라. 빨리 진급하게 해 달라고 기도하고 빌고 호소한다. 장단이라도 맞추듯 한쪽에선 그레이판 복을 받는다고 부추기고 강요하기도 한다. 그러나 그런 일들은 아무런 그럴듯해 보여도 불행과는 무관하다. 비록 불법의 이름으로 했다 해도 그건 허사다. 공염불인 것이다. 모름지기 불자라면 스스로 피안의 땀방울 만들고 제 힘으로 노를 저어야 한다. 보시·지계·인욕 정진의 배를 타고 선정 반야의 다리를 건너 영원한 자유의 그곳으로 가야 한다. 그렇다면 어떻게 하는 것이 그곳에 이르는 바른 길일까. 먼저 자의식의 죽음이라는 통행증을 발급 받아야 한다. 피안으로 가는 방법은 오직 그것뿐이다.

자의식의 죽음은 육신의 죽음이 아니라 관념의 죽음이다. 관념의 죽음은 좀처럼 수월키 어려운 자아 부정의 철저한 작업을 요구한다. 더 이상 '나', '나의 것'이라는 의식이 사라질 때까지 나를 부정해야 한다. 그것이 어렵거든 반대로 자의식을 확장하라. '나'라는 울타리를 타인까지 확장하고, 나아가 일체·유정물·무정물까지도 넓혀 가라. 일체 만물이 모두 다 그 울타리 속으로 들어 오도록 '나'란 존재를 확대 해석하라. 그래서 마침내 전체와 하나가 되라. 그것 또한 나의 죽음과 다르지 않다. 자아 부정과 자아 확장은 그렇게 죽을 '에서 만난다. '나'란 의식이 죽어야 비로소 건널 수 있다. ■龍眼

직장인을 위한 불교강좌 (2년과정)

동산불교대학 2001년도 신입생 모집

1. 대학 개설 취지

불교의 대중화와 대승불교 사상을 널리 알릴 사명감 있는 포교사를 양성기 위해, 교재덕스님 및 교수님을 초청하여 불교의 분야별 전문교육을 통하여 직장인을 위한 2년과정의 동산불교대학 제18기생을 모집함.

2. 교과목 및 교수

1년 교과목	· 인도불교사 · 중국불교사 · 한국불교사 · 유식사상 · 정토사상 · 법아사상 · 법화사상 · 화엄사상 · 불교사회복지론	· 무진장스님(본대학원장) · 정병호(동국대학교수) · 계환스님(동국대학교수) · 김성현(동국대학교수) · 묘주스님(동국대학교수) · 강희욱(동국대학교수) · 박 종(동산불교대학교수) · 김성진(동국대학교수) · 권만호(동국대학교수) · 보자스님(승가대학교수)
2년 교과목	· 불교학개론 · 선종사상 · 불교미술 · 밀교사상 · 표교법문론 · 근본불교 · 대승불교 · 비교종교론 · 불교성당론	· 권기홍(동국대학교수) · 최홍석(동국대학교수) · 윤영수(문화재단연구원) · 종석스님(승가대학교수) · 한정성(금강선원이사장) · 김호취(동국대학교수) · 유진스님(동국대학교수) · 최봉수(동국대학교수) · 주명철(동국대학교수) · 오국근(동국대학교수)

3. 모집방법 및 전형

모집인원	지원자격	제출서류	원서교부·접수	전형방법	강의일시 및 장소	비고
정규반 (100명) 주간반 (50명) 통신반 (50명)	불교를 적극 신봉하고자 하는 자	· 입학원서서통 · 주민등록등본 1통 · 반명함판사진 3매	2000년 12월 15일~ 2001년 1월 31일 입학료 150,000원	서류전형 (합격자 개별통보)	· 매주 토요일 오후 6시 (정규반) · 매주 목요일 오후 2시 (주간반) · 동산교육회관	통신반은 지방거주자나 출석수강이 어려운 자만 지원가능

4. 입학일시

2001년 2월 3일 (토) 오후 5시 (동산불교회관)

5. 원서교부처

○ 본대학 사무국 ☎ 732-1206~8, FAX 732-1207 (우)110-170 서울 중로구 견지동 13번지	○ 부산 : 불 서 보 급 사 ☎ 051)246-4321
○ 서울 : 보연각(조계사앞) ☎ 02)733-0333	○ 대전 : 보 문 서 점 ☎ 042)257-0161
○ 대구 : 삼영불교서림 ☎ 053)425-4097	○ 제주 : 한라불교신문사 ☎ 064)55-2203
○ 광주 : 불 일 서 점 ☎ 062)232-7542	

* 특전사항 : ○ 상기과정을 졸업한자는 포교사교사를 거쳐 조계종포교사 자격을 취득함.
○ 동국대 불교대학원 입학 자격

대한불교조계종 동산불교대학

토종 오가피의 신비

— 재배자가 직접 만들어 화제 —

舊소련에서는 국가대표선수들에게 오가피를 복용시켜 올림픽 및 각종 국제대회에서 놀라운 성적을 거둔 바 있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복용했던 소련산 가시오가피는 그 유효성분이 우리나라 토종오가피의 25%에 불과했습니다. (노벨수상자인 독일 와그너박사의 논문에서...) 왜냐하면 오가피의 원산지 우리나라이기 때문입니다.

■용내닐수 없는 것이 있다!

수신 토종오가피는 TV건강문화(i-TV 2000년 1월15일) KBS "6시 내고향", "나의 영농체험"에 출연한 17년간 오가피를 키워온 재배자 성광수씨가 직접 재배한 100% 국내산 토종오가피로 만듭니다. 가오가피나 수입 오가피로 만든 제품과 비교하지 마십시오.

■무료로 보내드립니다.

지금 전화주시면 오가피에 대한 보다 자세한 자료를 무료로 보내드립니다.

오가피 건강상담 : 02)447-0047